

같아지고 높아지고 또 비겨보고자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후 소위 제국(諸國)의 수장(首長)들은 보통 왕(王)이라고 칭해졌습니다. 사전에서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우두머리’로 정의됩니다. 물론 때로는 국가의 시조로서 조(祖), 패역(悖逆)한 군주로서 군(君)이라는 말도 사용되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나라는 왕이라는 칭호를 가깝게 두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왕이라고 하더라도 대왕(大王)이나 태왕(太王)처럼 격(格)이 한 수 높은 호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꼼꼼히 들여다보면 높임말이라기보다도 재위 시에 치적(治績)이 훌륭하여 후대에 기릴 수 있거나[대왕(大王)], 살아있음에도 실질적 왕위를 물려주고 뒷전에 들어앉은 경우 붙이는 것에[태왕(太王)] 족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왕이 스스로를 자신의 신하나 백성들에게 일컬을 경우에는 1인칭 대명사로서 짐(朕) 또는 과인(寡人)이라고 했는데, 이 경우 특별히 과인은 ‘덕(德)이 적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임금의 신하에게 자기를 낮추어 이르던 말이었습니다. 그렇고 보면 우리나라 임금들은 한 나라의 우두머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심성이 고상하고 겸양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와는 호칭의 격차이가 현격합니다. 대개의 경우 황제(皇帝)라는 호칭을 붙여두고 있다는 시각에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국의 황제는(대국이라서) 우리의 왕보다(소국이라서) 격을 한 수 위에 두고자 붙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십상일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굳이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전(字典)에서 황(皇)의 뜻은 천제(天帝)로서 우리식대로 이야기하면 ‘만물의 주재자로서 하나님’을 뜻합니다. 제(帝) 또한 황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소위 옥황상제(玉皇上帝)와 격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보기에는 폐악무도(悖惡無道)한 호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옆 나라 일본은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천황(天皇)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견상 천황은 ‘하나님[皇]의 하나님[天皇]’으로 새길 수 있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실로 무시무시하고도 어마어마한 호칭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이상의 호칭은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말 그대로 그들의 우두머리로서 임금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곧 격은 절대적인 것이지 상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비교하기에 왕이나 황제나 천황이나 하는 각기의 호칭에 대한 우열만이 문제시될 뿐입니다.

우스꽝스러운 괴변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웃나라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그나마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신 이유가 이 같은 겉손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왕’이라는 호칭은 황제와 천황과도 같이 일절 하나님을 대적하는 뜻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왕’도 ‘태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군’이나 ‘조’는 두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런데 황제와 천황 같은 천부당만부당한 호칭은 과연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보다 정확히는 그 패악한 사람 심사의 발로가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여기서 잠시 성경으로 돌아가 그 본류를 되짚어 보기로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 03:05)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선악과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위 기사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위 기록에서 해(解)를 구하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밑줄에서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를 때때로 반역사건(反逆事件)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사실을 덧붙여 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사 14:12-14)

위 기사는 하나님의 사람창조 계획에 반발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 마귀로서 소위 루시퍼(Lucifer)에 관한 기사입니다. 기사에서와 같이 루시퍼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Lucifer, Son of the Morning Star)이라고까지 불렸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때 가장 아끼고 사랑하셨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도록 허락받은 천사장(the Archangel, *Archangelus*)이었습니다. 곧 이름처럼 찬란하게 빛났던 루시퍼는 주위의 다른 천사들을 압도하는 아름다움과 용기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찬 천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루시퍼는 그를 추종한 다른 천사들을 대동하고 하나님의 사람창조 계획에 대한 반발의 선봉장이 되기에 이릅니다. 배경에는 자신의 빛나는 기쁨을 앞세워 하나님과 맞서고자 했던 용솟음치는 교만(驕慢)이 터 잡고 있었습니다. 곧 루시퍼는 스스로가 하늘에 올라 못 별 위에 보좌를 높이고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여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끝내는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보좌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반역천사(叛逆天使)라고 지칭하고 있음은 이 때문입니다. 이는 앞선 아담과 하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계 12:07-09)

하나님께서 명약관화(明若觀火)히 이 같은 루시퍼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추종한 반역천사들 또한 매한가지였습니다. 영원히 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음부의 골짜기에 모두를 떨어뜨려 가두어 두시고는 이를 갈며 울부짖게 하셨습니다. 그들 우두머리 된 루시퍼가 다름 아닌, 곧 사탄(Old Serpent, called the Devil or Satan)이었음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여기서 앞선 아담과 하와의 기사에 초점을 맞춰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따먹은 반역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것인데, 왜 선악과를 따먹기는커녕 보지도 못했던 우리가 그 죄를 원죄(原罪)라고 하여 뒤집어쓰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나가 한 번쯤은 고민했던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신학적 견해를 덧붙여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만으로 이를 대신해 두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보다 이해하기 쉽고 유익할 것이라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하 꼼꼼히 대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태생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는 악한 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보기에 사람(우리)이 사랑(하나님의 본체로서)의 계획으로, 곧 지극하신 사랑 때문에 창조되었다면 그러기에 사람은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신 결과가 사람이라면 마땅히 사람은 사랑의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이미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 숨 쉬고 있는 우리가 명명백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겨진 것은 우리가 사랑(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보일 수 있는 증거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증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확증(증거)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떳떳하게 말하고 내보일 수 있을까요? 백 걸음을 양보하여, 말하지 않고 내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다 알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증거라면 정말이지 우리는 한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는 있는 것일까요? 천 걸음을 양보하여 지금도 음부에서 우리를 집어 삼키고자 한순간도 변함없이 골몰하고 있는 반역의 죄수 루시퍼의 유혹과 간섭을 물리치고 우리의 삶에 오로지 하나님(사랑)을 기쁘게 맞이하여 모셔두고는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사랑)께 대적한 반역천사로서 루시퍼는 물론이고 아담과 하와 또한 하나님(사랑)으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대적한 천추에 이를 반역자들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되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장본인들임에야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보기에, 오늘날 그 사랑에서 벗어나고자 나아가 그 사랑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앞세워두고자 기를 쓰고 애쓰며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패악무도한 반역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나님)이 사랑의 혼을 심어 사람(우리)으로 만들어 놓았더니 그 사랑 갖든 사람이 이제는 반역의 죄수 루시퍼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 걸음을 양보하여 패악무도한 사람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사랑(예

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여 사람을 살려놓았더니 그럼에도 사랑을 등지며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지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활하게 사랑과 루시퍼의 장막을 시시때때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입니다. 아니 그런가요? 이것이 반역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단 한 번 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시시때때로 선악과를 따 먹고 있습니다. 달콤하고도 짜릿한 맛은 둘째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유쾌한지 따 먹을 때마다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나님)은 또 다시 선악과를 심어두시기에 급급하신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우리)에게 더하신 사랑(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황제가 되려고 하는 때로는 이것도 모자라 천황이 되려고 하는 악한 심사가 숨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때로는 그것이 장성하여 사랑(하나님)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패악한 심사가 깃들여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이 같은 증거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바로 보세요. 우리가 만든 호칭입니다. 증경총회장(曾經總會長), 총회장(總會長), 총연합회(總聯合會), 총감독(總監督), 대표회장(代表會長), 교황(敎皇), 실로 무시무시한 호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하면 언감생심 연세불수의 하나님 앞에서 장로(長老)라고 칭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여깁니다.

이상의 호칭에서 총(總)이라는 글자는 ‘거느리다, 통괄하다, 다스리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거느리고 통괄하며 다스리기에 이러한 호칭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상같은 사실은 이 같은 호칭

이 남이 붙여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칭해져 불리기를 원했던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 붙인 것이라는 점입니다.

노파심에서 바로 되짚어 두기에, 필자가 이 지면에서 적시(揭示)해 두고자 하는 핵심은 호칭 자체나 이 같은 호칭을 붙여두고 있는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호칭을 붙인 처사를 폄하하거나 저급한 것으로 치부하기 위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같은 호칭이 우리 앞에 신앙의 높고 낮음을 가늠하는 표식 내지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곧 그러한 호칭이 남에게 내보일 수 있는 신앙의 명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필자의 이러한 의구심이 기우(杞憂)라면 모르겠지만, 행여나 실제(實際)라면 이를 우리가 어찌 보아야 할까요? 아담과 하와처럼 ‘같이 되고자’, 루시퍼처럼 ‘높이고자 비기고자’ 의도하고 있는 악한 처사로 보아 마땅하지 않을까요? 마치 황제와 천황처럼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위에 오셨을 때, 그것도 유대인의 왕 썸 되는 호칭하나를 명패로 두르고 오셨다면 모르겠지만, 또한 사도바울이 스스로를 기독교황(基督教皇)이라 칭하며 이를 우리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남겨주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러기에 이 같은 호칭은 보면 볼수록 대하면 대할수록 너무도 교만(驕慢)하고 강박(剛愎)한 호칭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 막 10:45)

“...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후 01:15)

그렇다면 이 같은 호칭을 빌미삼아 우리 앞에 나서고 있는 교회지도자들의 마음가짐과 신앙적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또 다시 레위기의 기록을 들춰보며 이에 대한 바른 마음가짐을 추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레 08-10).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제정일치(祭政一致)의 민족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어느 민족보다도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지위를 극히 중요하게 취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대표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백성의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레위기에서는 제사장의 위임식(委任式)을 중요하게 다루어 이를 규례로 정해 두었습니다(레 08-10). 기록에 비추어, 위임식에 관한 규례는 외견상 으레 치러지는 형식적인 행사로도 보이지만, 제사와 정치가 일원화된 이스라엘에게 있어 위임식이 지닌 의의는 실로 엄숙하고 숙연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의 임직은 모세에 의하여 준비되는데, 곧 모세가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라는 말을 통하여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포함하여 그들의 의복과 관유(灌油)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숫양 2마리 그리고 무교병 1광주리를 준비하여야 하고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집결해 있어야 합니다.

이후에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목욕재계 시킨 후에, 제복을 입히고 관유를 취하게 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물에 발라 그들이 거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관유는 몰약(沒藥)·육계(肉桂)·창포(菖蒲)·계피(桂皮)·감람유(橄欖油)로 만든 것이었습니다(출 30:23-25). 이것이 끝나면 차례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의식은

죄 사함 받고 헌신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과 친교를 가질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매우 엄숙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제사장의 임직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화목제이기도 했습니다. 곧 제사장의 임직식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을 감사의 자리에 초대하고 드린 제물의 남은 부분을 하나님의 존전(尊前)에서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회식의 친교를 같이하기를 구하는, 말 그대로 화목제로서 치러졌습니다. 이 경우 화목제로서 제사장의 임직식은 하나님과의 친교가 최우선이었으므로 먼저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그들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기름을 붓는 의식으로 시작되는 임직식은 7일간에 걸친 축제로서 이후 이스라엘의 생활 터전에 견고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도 임직식이 있습니다. 곧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의 직분이 수여되는 경우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임직식에 비추어 참으로 엄숙한 것임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자신을 속죄제나 번제 그리고 화목제로 드린다고 하는 취지에서 매우 뜻 깊은 신앙의 행사로서 뿐만 아니라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축제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보아, 임직은 지위(호칭)를 정하고 신앙의 높고 낮음을 가늠하는 의식 내지 수단이 아닙니다. 나아가 신앙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판단기준은 더더욱 아닙니다. 임직은 그 사람에게 더 높은 신앙의 수준을 요구하고, 더 깊은 희생을 요구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더욱 더 낮아지는 모습과 행실을 요구하는

그야말로 엄숙하고도 경건한 의식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제사장의 임직은 아마도 이러한 정신이 깃든 행사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추상같은 사실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보다 높은 신앙을 요구하신 것이지,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머리 위에 군림케 하시고자 세우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릇 지도자는 특별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과는 다르게 학식과 경륜이 풍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보다 결코 더 귀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귀하거나 천한 것, 크거나 작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앞선 화제로 돌아가 봅시다. 필자가 이 지면에서 논했던 호칭은 그야말로 겉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곧 글자날낱을 따져보며 이게 옳고 저게 그른 것이라고 쑥덕쑥덕 대는 것은 한갓 쓸데없는 무익한 일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그렇게 비취졌다면 이 지면을 빌어 정중히 머리 숙여 사죄코자 합니다.

그렇지만 양보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호칭 속에 반드시 ‘섬김의 마음’과(예수님) ‘자신이 죄인 중에 죄수’라고 하는 고백이(사도바울) 결단코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모든 호칭의 배경에는 고라당의 패악한 교만의 습성이 뱀처럼 꼬리를 틀고 있다고 보아(민 15-17) 레위지파의 춤추는 칼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로 삼아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출 32).

호칭은 남이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 또한 우리의 선대들이

붙였음을 볼 때, 이는 더 이를 것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호칭은 격에 맞아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는 차치하고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지극히 겸손한 것이어야 합니다. 나아가 붙여진 호칭에 부끄럽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고 호칭을 대하면 대할수록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되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격(格)이 뭇 반쪽에도 비치지 못하는 지극히 작고 미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이에 집채만 한 호칭을 덧붙여두고 있다면 이를 부르기에 가장 기뻐할 자는 누구도 아닌 루시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